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점에서 본 건괘(乾卦)와 곤괘(坤卦)

김치완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 교수(교신저자)

임원철

제주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석사과정(주저자)

『주역(周易)』은 『시(詩)』·『서(書)』와 함께 동아시아 전통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된 『주역』의 음양관념은 서구의 이항대립적(異項對立的) 관점을 전제로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보니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점이라는 전통적 해석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조화(調和)'라든가 '상보성(相補性)', '음(陰)의 가치 재음미' 등과 같은 수사(修辭)를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주역』 첫머리에서 음양(陰陽)을 대표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의 괘효사(卦爻辭)에서 음양대대적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주역』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의 괘사(卦辭)와 효사(爻辭) 전반에서는 일음일양(一陰一陽)하는 존재의 생성법칙이 중층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음양(陰陽)은 전체 세계상(世界像) 가운데 어떤 특정 국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틀이라는 점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음양(陰陽) 어느 관점에서 『주역(周易)』을 재구성하는 것은 그 본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점에서 본 건괘(乾卦)와 곤괘(坤卦)

1. 서론
2. 건괘(乾卦)의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념
3. 곤괘(坤卦)의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념
4. 결론

1. 서론

『주역(周易)』은 『시(詩)』·『서(書)』와 함께 동아시아 전통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나머지 두 텍스트에 비해 그 정체성이 모호하다. 그래서 통일 진(秦) 제국 수립 이후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사상 검열 작업인 이른바 분서갱유(焚書坑儒)의 상황 속에서도 역(易)은 점서(占書)로 분류되어 화(禍)를 피한 일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이후로 『주역(周易)』은 『중용(中庸)』과 함께 유가(儒家)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다루는 중요한 텍스트로 여겨졌고, 그래서 상수(象數)와 의리(義理) 양면에서 다양한 해설서가 나왔다.

본래 주역(周易)은 주(周)나라의 역(易)을 가리키는데, 역(易)에는 그 밖에도 <연산역(連山易)>과 <귀장역(歸藏易)> 등이 있다.¹⁾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일부(一夫) 김항(金恒, 1826~1898)이

1) <연산역(連山易)>은 신농씨(神農氏)의 역(易)으로, 중국 고대 국가인 하(夏)나라 때에 쓰였는데, 간(艮 山)을 수괘(首卦)로 한다. <귀장역(歸藏易)>은 황제씨(黃帝氏)의 역(易)으로, 하(夏)나라 다음의 은(殷)나라

후천개벽사상을 역리화(易理化)한 <정역(正易)>이 있는데, 여기서 북(北)을 건(乾), 남(南)을 곤(坤)이라고 했다. 역(易)에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 까닭은 선진(先秦) 시대에 통용되던 운동과 변화의 관념을 담고 있던 역(易)이 한나라 이후에 유가의 형이상학적 이론을 다루는 텍스트로 여겨졌고, 송(宋)나라 이후에는 『주역(周易)』이 역(易)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²⁾

역(易)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說)이 있지만, 대개 ‘변화 가운데 중정(中正)을 추구하는 것’에 의미를 둔다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³⁾ 이 의견일치는 고대 동아시아인이 자연환경의 변화가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이들 고대 동아시아인은 자연환경의 변화를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점에서 파악했다. 그래서 낮과 밤, 태양과 달, 더위와 추위 등을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변화하는 자연현상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주체적으로 극복함으로써 ‘온전히 생존하려고’ 노력했다.⁴⁾

때에 쓰였다. <귀장역>에서는 곤(坤 ☷, 地)을 수괘(首卦)로 한다.

- 2) 김치완, 『개정판 실용易사상』,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7, 4-5쪽.
- 3) 역(易) 자를 ‘바뀐’이라고 해석한 학자로는 청(淸)나라 때 경학자(經學者)인 손이양(孫貽讓, 1848~1908)이 있는데, 역(易)의 자원(字源)인 일월설(日月說)이나 도마뱀설이 모두 변화를 가리킨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서,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한다. 그리고 『주역』 「계사(繫辭)」 상(上)에서 “역(易)이란 만물을 열고 일을 이루어, 천하의 도를 포괄하는 것이다(夫易 開物成務 冒天下之道 如斯而已者也).”라고 한 것이나, “역(易)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작위도 없이, 고요히 움직이지 않지만, 이에 감응하면 모든 일에 통하게 된다(易無思也 無爲也 寂然不動 感而遂通天下之故).”라고 한 것, 그리고 「계사」 하(下)에서 “역(易)이란 상징·이미지[象]이고 상(象)이란 형상[像]이다(是故易者 象也 象也者 像也)”라고 한 것이 모두 변화 가운데 중정(中正)의 원리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본다.
- 4) 申哲淳은 『周易의 乾坤개념에 관한 研究』에서, 음양대대적 관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동양의 세계관에서는 자연을 고정

사실 인간 존재가 현실적으로 음양(陰陽), 곧 상호 반대되는 것들 사이에 놓여 있다는 관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박하게 말하면 ‘이것’은 ‘저것’, 곧 ‘이것 아닌 것’과의 대립항 속에서만 인간에게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역(易)은 세계 모든 존재를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역(易)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이항대립이 변화의 양상 속에서 그렇게 파악되는 것에 불과할 뿐, 언제나 가변적이라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역(易)은 데리다(Jacques Derrida, 1930~2004) 이전에 이미 이항대립의 해체(Deconstruction)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오늘날에는 이항대립과 그 해체라는 관점에서 역(易)의 음양 관념에 대한 연구들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의 특징은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전통적인 음양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도, 이 음양의 관계가 능동성과 수동성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생불식(生生不息)하고 순환하는 우주의

되어 있지 않은 변화하는 세계로 이해하고, 그 변화의 법칙은 陰陽·日月·晝夜·寒暑·水火·東西 등 상반된 두 측면이 함께 공존하는 형태로 이해하고 있다. 상반된 두 측면은 陰陽이란 개념으로 범주화되었고 乾坤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므로써 주역철학의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쪽)고 주장한 바 있다. 음양대대적 관점이 먼저인지, 세계의 변화에 대한 관찰이 먼저인지는 확정할 수 없지만, 대개 동양사상이 이 음양대대적 관점을 근간으로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 5) 데리다는 서양철학의 창시자인 플라톤 이후 서양철학의 전통이 되어버린 이항대립 구조를 해체하려고 했다. 정신과 육체, 남자와 여자, 신과 인간처럼 두 요소를 서로 대립시킴으로써 정의(Definition)하고, 그 속에서 규칙을 발견하고, 질서를 짓는 방식이 문제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항대립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현실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것이 수평적이지 않고 수직적일 때 모든 것들을 서열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 내용은 ‘신동기, 『희망, 인문학에게 묻다』, 열도라도, 2009, 131-150쪽을 참조할 것.

모습처럼 상호교섭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거나, 오히려 '음(陰)의 덕성이야말로 주역이 표방하는 세계관의 핵심'이라는 점을 주의환기시킨다는 데 있다.⁶⁾ 이런 시도는 지금까지 역(易)이 존양비음(尊陽卑陰)의 관점에서 해석되어 온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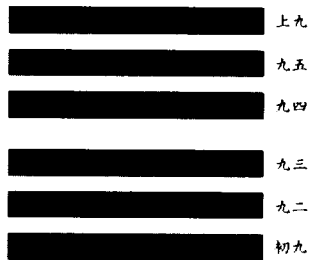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이런 최근의 연구 동향을 일정 정도 반영하면서, 『주역』의 본의라고 할 수 있는 '변화 가운데 중정(中正)을 추구하는 것이 건괘(乾卦)와 곤괘(坤卦)의 패효사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려고 한다. 사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역(易)이 변화를 뜻하고,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한 조화 또는 중정(中正)을 모색하는 수양론적(修養論的)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이런 접근방식에서 존양비음(尊陽卑陰)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이라고 할 때, 그것 또한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⁷⁾

-
- 6) 金京一은 「『易經』의 乾坤의 世界의 構造」에서 음양 대대적 관점에서 역의 세계관을 건곤적 세계 구조로 파악한 바 있는데(『東洋哲學研究』 제40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임채우는 「陰陽관계론에서 본 여성관-男尊女卑論의 易學的 근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에서 김경일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역의 음양개념은 상호조화를 전제로 하며, 상호관계 맥락 속에서 서로 전환되는 유연한 개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동양철학』 제25집, 한국동양철학회, 2007). 심귀득도 「주역에서 음양의 조화에 관한 연구: 음의 관점에서」를 통해서 음의 덕성이 아주 좋은 시기를 상징하는 괘에서 군주의 덕성으로 요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존양비음의 관점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관점 속에서 음의 덕성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한국여성철학』 제4집, 한국여성철학회, 2004).
- 7) 이 검토에는 『역』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이 尊陽卑陰의 관점에 입각했다는 비판에 대한 비판적 접근까지도 포함한다. '대립을 극복한 조화의 추구'라든가 '陰의 順한 덕성 강조' 등도 아직 이항대립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역이 자연의 변화 양상이라고 한다면, 존양비음이라는 수직적 가치 부여는 역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陰의 가치가 우위에 있다거나 그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비판할 수

2. 건괘(乾卦)의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념

건괘(乾卦)는 『역(易)』의 첫머리에 나오는 괘로, 소성괘(小成卦) 건(乾; ☰)이 위아래로 중첩되어 있어서 중천건(重天乾)이라고 한다. 대성괘(大成卦) 예순 넷 중 여섯 효 모두가 양효(陽爻; -)로만 이루어진 괘이다. 『역(易)』 「경상(經上)」에 나오는 건괘(乾卦)의 괘효사는 다음과 같다.

重天乾(☰)



건(乾)은 크게 형통한다. 곧아야 이롭다. 초구(初九) 물 속에 잠겨 있는 용(龍)이다. 함부로 뛰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구이(九二) 나타난 용이 발에 있다. 대인(大人)을 얻는 데 이롭다. 구삼(九三) 군자(君子)가 종일토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저녁에는 반성(反省)한다면 위태로운 일이 있어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구사(九四) 혹은 뛰어서 못 속에 있으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구오(九五)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 대인(大人)을 얻는 데 이로울 것이다. 상구(上九) 높게 있는 용, 뉘우침이 있을 것이다. 용구(用九) 못 용의 머리가 구름 속에 숨겨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길(吉)할 것이다.⁸⁾

역(易)의 배열이 “논리적 연역상 괘 상호 간에 서열 없이 평등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그 “기호 해석에는 어떤 가치 기준이 적용”되어, 순양(純陽)인 건(乾)과 순음(純陰)인 곤(坤)의 교합으로 “나머지 62괘가 생겨 나오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리고 건괘(乾卦)의 전체 상황을 묘사하는 “건

있다.

8) 『易』 「經上」 : “乾 元亨利貞 初九 潛龍勿用 九二 見龍在田利見大人 九三 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無咎 九四 或躍在淵無咎 九五 飛龍在天利見大人 上九 亢龍有悔 用九 見群龍無首吉.”

원형이정(乾元亨利貞)이라는 괘사가 “자연의 시간적 운행인 춘하추동에 대응되어, 쉽 없이 성실하게 운행하는 자연계의 법칙”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⁹⁾

그런데 건괘(乾卦) 「상(象)」의 “하늘의 운행이 건실하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스스로 힘써 쉬지 않는다(天行健, 君子以自彊不息).”는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 건괘(乾卦) 괘사를 풀이하다보면 마치 동아시아 우주론의 시간성을 변화(易)의 첫 머리에서 선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은 우주 내에 존재하는 시간의 변화원리로 인하여, 그 생명적 존재근거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¹⁰⁾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서는 건괘(乾卦)의 괘사를 ‘시간 아래의 인간은 씨앗(元)으로부터 성장하고(亨) 열매를 맺고(利) 죽게(貞) 된다.’라고 풀이하기도 한다.

물론 건괘(乾卦)를 천(天)이라고 할 때, 이 천(天)이 “天道와 地道의 쏠 개념이 포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만물의 생명적 토대가 되는 우주에는 天과 地가 모두 동시적으로 역할하고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풀이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괘(乾卦)를 천(天)-시간으로 보는 까닭을 “하늘이 만물의 생명적 근거가 될 수 있음은 하늘에 해와 달, 그리고 온갖 별자리가 있기 때문”이고, “아무 것도 없는 및 미한 하늘(푸른창공)이라면 거기에서 생명적 시원이 인출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¹¹⁾ 왜냐하면 대성괘(大成卦)의 건곤(乾坤) 두 괘를 시간성과 공간성의 관점에서 수평적으로 배치하는 것은 수직적 가치의 개념들을 해체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건괘(乾卦)를 여전히 곤괘(坤卦)의

9) 인용문은 '정해왕, 「정해왕의 주역으로 보는 세상 <5> 건괘(乾卦) 상, 『국체신문』, 2007. 1. 31일자 19면 기사'에서 인용하였음.

10) 송재국, 「周易 乾·坤卦의 철학적 함의」, 『인문과학논집』 제30집,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209쪽.

11) 인용문은 '송재국, 위의 논문, 207쪽'에서 인용한 것임.

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건괘(乾卦)의 패사를 시간성의 관점에서 보려면, 건곤(乾坤)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건괘를 제외한 나머지 괘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건곤(乾坤)이 변화의 문(門)”¹²⁾이라는 『역(易)』 「계사(繫辭)」 하(下) 6장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공자(孔子)의 입을 빌어 되물은 것으로서, “건(乾)은 양물(陽物)이고, 곤(坤)은 음물(陰物)이다. 음과 양이 덕의 기운을 합하여 강유(剛柔)의 체(體)가 있다.”¹³⁾라고 해서 건곤(乾坤)을 대비시키는 듯한 구절이 뒤이어 나온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이것으로 천지의 모든 일을 본받고 이것으로 신명(神明)의 덕에 통한다.”¹⁴⁾고 한 것으로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건(乾)은 곤(坤)과의 관계 속에서 순양(純陽)의 위치를 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을 포괄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천(天)이 다만 창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일반을 가리킨다는 데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실제로 공맹학의 전통에서 ‘천(天)’이라고 하면 천체(天體)인 창공(蒼空)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존재일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하늘이라고 하면 천체(天體)를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공맹학에서 사용하는 ‘하늘’이라는 말은 천체(天體)나 그 아래에 있는 물질적인 것에 국한된 용어가 아니라, ‘존재일반’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하늘이란 시(時)·공간(空間)을 포함하는 세계 그 자체이면서, 그러한 세계를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원리까지도 포함하는 용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⁵⁾

12) 『周易』 「繫辭」 下 6; “乾坤 其易之門邪.”

13) 『周易』 「繫辭」 下 6; “乾 陽物也 坤 陰物也 陰陽合德而剛柔有體.”

14) 『周易』 「繫辭」 下 6;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15) 관련 내용은 ‘김치완, 『天·上帝論과 理氣論을 중심으로 본 茶山 인간관의 기초』, 『대동철학』 제34집, 대동철학회, 2006, 3-8쪽’을 참조할 것.

동아시아적 전통에서는 천문역상(天文曆象)이 일반적으로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괘(乾卦)의 괘사를 시간성에 초점을 맞추어 풀이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곧 건괘(乾卦)의 괘사는 곤괘(坤卦)와 함께 '존재 일반과 그 원리가 있는 때(時)와 곳(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 그 자체를 순양(純陽)이라거나, 공간에 우선하는 개념으로 상정한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동아시아적 세계관에서는 'Time and Space'라고 해서 시간이 공간보다 앞서서 서양의 세계관에 비해 '우주(宇宙)'라고 해서 공간이 시간보다 앞서 언급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발생이 고요함이라는 전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양음(陽陰)이라고 하지 않고, 음양(陰陽)이라고 해 온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성의 관점에서 건괘의 괘사에 주목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이미 동정(動靜), 곧 음양(陰陽)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자(朱子, 1130~1200)는 건괘(乾卦)의 본의(本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시(始)는 원(元)이다. 종(終)은 정(貞)이다. 종(終)이 없으면 시(始)가 없고 정(貞)이 없으면 원(元)이 될 수 없다. 이는 성인(聖人)이 건도(乾道)의 종시(終始)를 크게 밝힌다면 괘의 육위(六位)가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육양(六陽)을 타고 천도(天道)를 행한다는 것이니 이것이 성인의 원형(元亨)이다.¹⁶⁾

경험적으로 '시간'은 음양(陰陽), 소식(消息), 영허(盈虛)에서 감지될 수 있다. 그러한 것이 가장 손쉽게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춘하추동(春夏秋冬)의 사계절이다. 그러므로 네 계절의 변화 양

16) 『周易本義』 乾卦: “始卽元也 終謂貞也 不終則无始 不貞則无以爲元也 此言聖人 大明乾道之終始則見卦之六位 各以時成而乘此六陽 以行天道 是乃聖人之元亨也.”

상에 들어맞는 인간 행위의 결과물인 덕(德)을 배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이 시간 내에서도 이미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계가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건괘(乾卦)의 문언(文言)에서도 확인된다.

원(元)이란 착한 일의 어른이요, 형(亨)이란 아름다움의 모임이요, 이(利)란 원리의 화합이요, 정(貞)이란 일의 줄거리이다. 군자가 어진 일을 본받음이 족히 모든 사람의 어른이 된다. 모이는 것이 아름다워서 족히 예에 합할 것이다. 물건을 이롭게 함이 족히 의리에 화합할 것이다. 곧고 곧음이 족히 일을 주장할 것이다. 군자는 이 네 가지 덕(德)을 몸소 행하는 자이다. 그런 까닭에 건(乾)은 원형이 정(元亨利貞)이라고 한다.¹⁷⁾

원형이정(元亨利貞)은 변화의 때가 바야흐로 시작해서 종결될 때까지를 네 시점으로 구분하고, 그것에 알맞은 인간 행위를 이념화한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덕, 시작과 마침이 중층적으로 체계화된 것이다.¹⁸⁾ 이 중층적 구조는 효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하나의 괘는 변화 가운데 어떤 특정 상황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 구성요소인 여섯 개의 효는 그 상황 가운데 구체적인 변화 과정을 드러낸다. 아래로부터 초(初)-이(二)-삼(三)-사(四)-오(五)-상(上)이라고 할 때, 초(初)는 어떤 상황이 시작하는 자리(位)이고, 상(上)은 그 상황이 종결되고 한계를 맞이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17) 『易』「經上」乾卦 文言; “元者善之長也 亨者嘉之會也 利者義之和也 貞者事之幹也 君子體仁 足以長人 嘉會足以合禮 利物足以和義 貞固足以幹事 君子行此四德者 故曰乾元亨利貞.”

18) 본래 건괘의 괘사에는 다양한 해석이 있다. 程頤(1033~1107)는 元亨利貞을 四德으로 보아 각각 끊어 읽었지만, 주자는 元亨과 利貞을 각각 붙여서 ‘크게 형통하고 곧음이 이롭다고 풀이했다. 王弼은 「文言」에 입각해서 程頤처럼 독립적인 四德으로 끊어 읽었다. 坤卦의 괘사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처럼 각각 끊어 읽는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덕, 始終이 중층적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고 하겠다.

괘 전체의 상황이 시작하는 시점과 종결되는 시점의 호사는 괘사와 반대되는 경우도 많다. 변화하는 양상을 예순 네 개의 국면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다시 여섯 개의 구체적인 변화의 국면으로 나누었을 때, 그 시작점과 종결점의 평가가 괘 전체의 국면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음양대대적 관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건괘(乾卦)의 경우 변화의 가능성으로 가득한 극양(極陽)한 괘이지만, 변화의 준비 국면인 아래의 내괘와 변화가 구체화되는 위의 외괘로 구분해볼 수 있다. 물론 내외괘 모두 그 가운데 국면에서는 괘 전체의 국면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는 하지만, 내 외괘의 시작과 종결 국면에서는 괘 전체의 성격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건괘(乾卦)의 초구(初九)는 '물에 잠겨 있는 용으로서 아직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때'를 가리킨다. 그래서 '쓰지 말라(勿用)'고 한 것이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때이지만, 아직 그러한 변화가 구체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삼가라는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물은 아직 양(陽)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음(陰)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정작 건괘의 용(龍)이 힘을 얻는 곳이기도 하다.¹⁹⁾ 그러므로 초구의 때에 맞추어 대처하고 나면, 스스로를 드러낼 수 있는 구이(九二)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때가 아니므로, 다음 단계로 자신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대인(大人)을 기다려야 한다. 내괘의 마지막 국면인 구삼(九三)에 이르러서는 온전히 바깥 세상으로 나설 최종 준비를 해야 하므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열중해야 한다.

내괘가 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외괘는 바깥으로의 변

19) 小成卦에서 물은 坎卦(☵)로, 위아래 陰으로 둘러싸인 陽의 부호로 표기된다. 乾卦 初九의 陽은 이렇게 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오히려 그래서 용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화 국면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외괘의 초입인 구사(九四)에서는 바깥으로 나가지만, 초구(初九)의 뜻을 온전히 떠나지 않는 것으로 묘사된다. 구오(九五)의 시점은 외괘의 가운데 위(位)로서 괘 전체의 변화 국면이 온전히 드러난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인 하늘에서 나는 용'으로 묘사된 것이다. 하지만 이때조차도 구이(九二)에서 필요했던 대인(大人)이 요청된다.²⁰⁾ 변화의 국면이 극으로 치달을 때 곁에서 견제해줄 현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극에 달해서 상구(上九)에 이르면 제자리를 벗어나 더 위를 나는 용이 되어버려, 다시 자신에게로 귀결되는 국면에 접어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괘(乾卦)는 만물이 변화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순양(純陽)의 때이지만, 괘사 자체에 이미 음양소식영허의 때를 포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괘와 외괘, 각 효의 위치에 따라 일음일양(一陰一陽)하는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주역(周易)』의 첫 머리로서 건괘(乾卦)가 땅에 대비되는 하늘, 여성에 대비되는 남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역(易)이 변화의 중층적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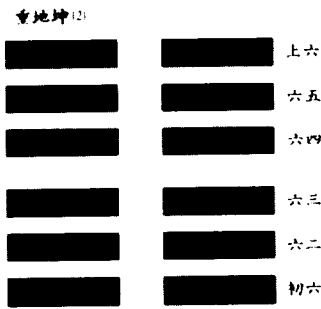
3. 곤괘(坤卦)의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념

곤괘(坤卦)는 건괘와 함께 전체 괘를 대표하는데, 소성괘(小成卦) 곤(坤; ≍)이 위아래로 중첩되어 있어서 중곤지(重坤地)라고 한다. 대성괘(大成卦) 예순 넷 중 여섯 효 모두가 음효(陰爻; --)로만 이루어진 괘이다. 『역(易)』 「경상(經上)」에 나오는 곤괘(坤

20) 정해왕은 「정해왕의 주역으로 보는 세상 <6> 건괘(乾卦) 하」에서 九二에서 필요한 대인은 九五의 대인이요, 九五에서 필요한 대인은 九二의 대인이라고 구분한 바 있다(『국제신문』, 2007. 2. 7일자 19면 기사).

卦)의 괘효사는 다음과 같다.

곤(坤)은 크게 형통한다. 암말의 곧음에 이롭다. 군자가 갈 곳이 있을 때에, 먼저 가면 어릿거리고 뒤에 가면 얻을 것이니 이로움을 주장한다. 서남쪽은 친구를 얻고 동북쪽은 친구를 잃을 것이다. 마음이 편안하고 바른 데 편안하면 길(吉)할 것이다. 초육(初六) 서리를 밟으면 곧은 얼음이 온다. 육이(六二) 곧고 바르고 크다. 익히지 않아도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 육삼(六三) 빛나는 것을 가져서 곧게 할 것이다. 흑시 왕업(上業)에 종사할지라도 이루는 것이 없이 끝날 것이다. 육사(六四) 주머니를 여미듯이 한다면 허물도 없고 칭찬도 없을 것이다. 육오(六五) 누런 치마를 입으면 크게 길(吉)할 것이다. 상육(上六) 용(龍)이 들에서 싸우니 그 피가 검고 누렇다. 용육(用六) 영원히 곧아야 이로울 것이다.²¹⁾



건괘(乾卦)가 육십사괘의 첫 머리에서 변화의 때를 중층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 곤괘(坤卦)는 이 변화의 때가 펼쳐지는 곳을 중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괘사에서도 기본적으로 건괘(乾卦)에서 천명한 '원형이정(元亨利貞)'의 구도를 계승하고 있다.

다만 곤괘(坤卦)의 괘사에서는 '곧아야 이롭다(利貞)'라고 하는 대신, '암말의 곧음에 이롭다(利牝馬之貞)'라고 하고, 뒤이어서 '군자가 갈 곳(君子有攸往)'이라고 해서 공간적인 면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건괘(乾卦)의 괘사와는 다르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乾卦에서는 형이상학적인 龍으로 설명

21) 『易』『經上』: "坤 元亨 利牝馬之貞 君子有攸往 先迷 後得主利 西南得朋 東北喪朋 安貞吉 初六 履霜 堅冰至 六二 直方大 不習無不利 六三 含章可貞 或從王事 無成有終 六四 括囊 無咎無譽 六五 黃裳元吉 上六 龍戰于野 其血玄黃 用六 利永貞."

하고 坤卦에서는 형이하적인 말로서 표현하였다.”²²⁾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물론 『사기(史記)』 「악서(樂書)』를 비롯한 중국 고전에는 상상의 동물인 용이 현실의 말(馬)과 짝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식의 관념이 자주 나온다.²³⁾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易)』에서도 ‘말은 소성괘 건(乾)에 속하고, ‘소가 소성괘 곤(坤)에 속하는 것으로 나온다.²⁴⁾ 그런데도 굳이 궤사에서 ‘암말을 언급한 이유를 왕필은 다음과 같이 풀이한 바 있다.

곤(坤)의 곧음이 이로운 바는 암말에 이롭다. 말은 아래에서 다니는 것이고, 암컷으로 순함이 지극한 것이니, 지극히 유순한 후에 형통하므로 암말이 곧아야 이롭다는 것이다. … 서남쪽은 양육해주는 곳이니, 곤과 도를 함께 하는 곳이므로 벗을 얻는다고 하였다. 동북쪽은 서남의 반대이므로 벗을 잃는다고 했다. 음(陰)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무리를 여의어서 반대되는 무리에 간 후라야 안정하여 길하게 되는 것이다.²⁵⁾

왕필의 풀이는 ‘아래에서 다니는 것(在下而行者)’과 ‘따름이 지극한 것(順之至)’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건(乾)의 변화하는 때가 전개되는 공간으로서 곤(坤)을 정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22) 申哲淳, 「周易의 乾坤개념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60쪽.
- 23) 『史記』 「樂書」에는, 한 무제가 渥洼水에서 ‘天馬’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의 준마 한 필을 얻자, “태일산에 은혜를 내리사 천마를 보내셨는데, 붉은 땀에 젖어서 그 땀에 땅도 붉게 물들었네. 내달리는 모습은 만리를 뛰어넘으니, 누구와 짝할까? ‘용’이라면 벗이 되지(太一貢分天馬下 霑赤汗兮沫流赭 騁容與兮躡萬里 今安匹兮龍爲友)”라는 내용의 <태일지가(太一之歌)>를 지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그 밖에도 뛰어난 말을 용으로 표현한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 24) 『易』 「說卦」; “乾爲馬 坤爲牛 震爲龍 巽爲鷄 坎爲豕 離爲雉 艮爲狗 兌爲羊.”
- 25) 樓宇烈, 『王弼集校釋』, 華正書局, 臺北; 民國 81年, 225-226쪽; “坤貞之所利 利於牝馬也 馬 在下而行者也 而又 牝焉 順之至也 至順而後乃亨 故唯利於牝馬之貞 … 西南 致養之地 與坤同道者也 故曰得朋 東北 反西南者也 故曰喪朋 陰之爲物 必離其黨 之於反類 而後獲安貞吉.”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로 坤卦를 표현하지 않고 말로 표현한 것은 암말은 유순하며 한번 짝을 지으면 다른 짝을 거들떠보지 않은 굳센 정조가 있기에 말로 표현한 것이다.”²⁶⁾라고 하면 곤괘(坤卦)가 건괘에 비해 가치 절하된 듯한 인상이 든다. 왜냐하면 이런 생각에서부터 곤(坤)이 순음(純陰)으로서 사태에 순응하는 수동성을 가졌다는 오해가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곤괘(坤卦)의 패사를 우주의 한 축인 공간성의 관점에서 보려면, 오히려 건괘(乾卦)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앞서 살펴보았던 『역(易)』 「계사(繫辭)」 하(下) 6장의 의미는 물론, 곤괘(坤卦) 「단(象)」과 「상(象)」의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지극하다. 곤원(坤元)이며, 만물이 모두 여기에서 난다. 이에 순종하여 하늘 뜻을 받는다. 곤(坤)은 두꺼워서 만물을 싣고, 덕(德)은 무강(無疆)에 합한다. 포함하며 넓으며 빛나고 커서 모든 물건이 모두 형통한다. 암말은 유순한 땅의 종류이다. 땅을 다니는 것이 끝이 없다. 유순하고 이정(利貞)한 곳은 군자가 갈 곳이다.²⁷⁾

땅의 형세는 곤(坤)이다. 그런 때문에 군자는 두꺼운 덕(德)으로 물건을 싣는다.²⁸⁾

곤(坤)은 건괘(乾卦)에 대비된 수직적인 위치에서 순음(純陰), 순종(順從)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순양(純陽)의 건괘와 동등한 위치에서 다른 모든 괘와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고, 그것들을 실어내는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점은 「서괘(序卦)」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도 명확하

26) 申哲淳, 앞의 논문, 60쪽. 이런 관점은 『伊川易傳』의 “坤 乾之對也 四德同 而貞體則異 乾以剛固爲貞 坤則柔順而貞 牝馬柔順而健行 故取其象曰牝馬之貞.”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27) 『易』 坤卦 「象」; “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 坤厚載物 德合無疆 含弘光大 品物咸亨 牝馬地類 行地無疆 柔順利貞 君子攸行.”

28) 『易』 坤卦 「象」; “地勢坤 君子以 厚德載物.”

게 드러난다.

천지가 있는 연후에 만물이 생한다. 천지 사이에 차 있는 것은 오직 만물이다. 때문에 이것을 준괘(屯卦)로 받는다. 준(屯)이라는 것은 차 있다는 것이다. 준이란 물건이 비로소 난다는 것이다.²⁹⁾

동아시아적 세계관에서 천지(天地)는 세계, 또는 세계 내 존재를 총칭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때 천지는 구체적인 자연사물이라기 보다는 그에 앞선 개념들을 가리킨다. 이 세계 내에서 어떤 것이 존재하려면, 그리고 '그것이 있다'고 인식하려면 그것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은 인식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따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천지'라고 병기(併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암말(牝馬)'이라고 한 것은 '존재가 변화의 때에 맞추는 공간'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동성 내지는 순응성이 강조되는 것은 그 본래의 의미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문언(文言)」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곤(坤)은 지극히 유순하면서도 움직이는 것은 강(剛)하다. 또 지극히 고요하면서 덕(德)이 바르다. 뒤에 가면 주장을 얻어서 떳떳함이 있다. 만물을 포함해서 그 덕화(德化)가 크다. 곤(坤)의 도(道)는 그것이 순탄하다. 하늘을 받아서 때로 행한다. 착한 일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다. 착하지 않은 일을 쌓은 집에는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다. 신하로서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으로서 그 아버지를 죽인다는 것은 하루아침이나 하루저녁의 일이 아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것이 까닭이 있다. 이것을 일찍이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역(易)에 말하기를, 서리를 밟으면 곤은 얼음이 온다고 했다. 대개 순(順)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곤다는 것은 바르다는 말이다. 바르다는 것은 옳다는 말이다. 군자는 공경으

29) 「易」 「序卦」; “有天地然後萬物生焉 盈天地之間者唯萬物 故受之以屯 屯者盈也 屯者物之始生也.”

로 안을 곧게 하고 옳은 것으로 밖을 바르게 한다. 공경하는 것과 옳은 것이 확립되면 덕(德)이 외롭지 않다. 곧고 바르고 큰 것을 익히지 않고서도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은 곧 그 행하는 바를 의심치 않는다는 말이다. 음(陰)은 비록 아름다운 것이 있다고 하나 이것을 가지고 왕업(王業)에 종사하면 감히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것은 지도(地道)와 처도(妻道)와 신도(臣道)이다. 지도(地道)는 이루는 일이 없는 대신 끝을 갖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변화해서 초목이 무성하고 하늘과 땅이 닫히면 어진 사람이 숨는다.³⁰⁾

음(陰)의 또 다른 표현은 유(柔)이다. 그런데 「문언」에서는 곤(坤)이 유(柔)하다고 하면서도 움직임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剛)하다고 한다. 그리고 곤(坤)의 또 다른 술어인 '순(順)'을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오는 것” 곧 자연법칙으로 정의하면서 곧다거나 바르다, 그리고 크다고 풀어낸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왕업을 설명하는 뒷부분에서는 ‘이루는 일이 없는 대신 끝이 있다’거나 ‘숨는다’는 등의 수동적인 표현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반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으로 보건대, 곤(坤)의 음(陰)은 단순히 수동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하면서도 강하다’는 말은 자연스러운 사물논리를 거스르지 않지만, 그러한 논리를 실행하는 공간으로서 굳건함을 가지고 있다는 중층적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중층적 구조는 효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곤괘(坤卦)에는 사실상 『역(易)』의 핵심 사상이 드러난다. 역(易)을 ‘세계의 변화’라고 할 때, 그 효과는 세계의 변화에 대처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결정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체

30) 『易』 『經上』 坤卦 文言; “坤至柔而動也剛 至靜而德方 後得主而有常 含萬物而化光 坤道其順乎 承天而時行 積善之家 必有餘慶 積不善之家 必有餘殃 臣弑其君 子弑其父 非一朝一夕之故 其所由來者漸矣 由辯之不早辯也 易曰 履霜 堅冰至 蓋言順也 直其正也 方其義也 君子敬以直內 義以方外 敬義立而德不孤 直方大 不習無不利 則不疑其所行也 陰雖有美 含之以從王事 弗敢成也 地道也 妻道也 臣道也 地道無成 而代有終也 天地變化 草木蕃 天地閉 賢人隱.”

화된다. 그런데 「문언」에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초육(初六)의 효사인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온다.'고 할 때의 '서리'는 조짐이다.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조짐'은 인간의 실천을 요구하는 계기로서 상당히 중요하다. 모든 일은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짐을 무시한다는 것은 분별해야 할 것을 때맞춰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초육(初六)의 조짐을 읽어내면, 육이(六二)에 이르러 '곧고, 바르며, 큰' 제 자리를 찾아들어갈 수 있다. 제 자리를 찾아들어간 다음에는 굳이 억지로 무엇인가를 익히려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자리를 찾아들어간 것만으로도 이롭기 때문이다. 내괘의 마지막 국면인 육삼(六三)에서는 세상에 나가기 전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그래야 '빛남을 머금음(含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세(事勢)의 추이를 보고 안으로 자신을 함장(含章)한 다음에 펼쳐지는 외괘의 첫 머리인 육사(六四)에서는 마치 '주머니를 여미듯'해야 한다. 그래야 허물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허물이 없다고 해서 칭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아직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고 다만 그러한 때를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³¹⁾ 그 다음 국면인 육오(六五)에서도 여전히 한 가지 조건이 제시된다. 곧 '누런 치마(黃裳)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적 전통에서 황색(黃色)은 가운데를, 치마는 아래를 뜻한다. 그러므로 이 국면은 건괘(乾卦)의 구오(九五) 재천(在天)처럼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그 중심은 모두가 우러러보는 위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하는 아래의 중심이다.³²⁾ 그리고 이 자리를 벗어나 더 위로 향하면 음(陰)이 극에

31) 六二에서는 제자리를 찾아들어갔으므로 모든 것이 이롭지만, 六四에서는 이미 밖으로 발현되어 아직 六五의 제자리를 찾아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므로 허물을 물을 것도 칭찬할 것도 없다고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정해왕은 「정해왕의 주역으로 보는 세상 <8> 곤괘(坤卦) 하」에서 “건

달하게 된다. 이것을 상육(上六)의 효사에서는 하늘의 원리를 상징하는 용이 땅의 공간인 들에서 싸워 검고 누런(玄黃) 피를 흘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음(陰)이 극강(極剛)하여 오히려 양(陽)과 투쟁하는 상황이 벌어진 국면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곤괘(坤卦)는 만물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여 그러한 변화가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순음(純陰)의 곳을 상징하지만, 패사에서 말하는 ‘암말’이나 효사에서 말하는 음(陰)이 송대 이후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곤괘의 술어로서 음(陰)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조짐에서부터 극강(極剛)에 이르기까지 가변적인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동아시아적 전통에서는 음양(陰陽)이 대대적 관계에서 오히려 음(陰)이 먼저 표기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음(陰)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미 송(宋)의 신유학, 또는 『주역(周易)』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다시 오해한다. 하지만 『주역(周易)』에는 음(陰)이 낮게 평가되고 양(陽)이 높게 평가되어야 할 근거가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易)은 변화를 가리키는 것이고, 음양(陰陽)은 그 변화의 국면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괘(乾卦)의 비룡(飛龍)의 때에 대응되는 전성기이다. 그러나 곤괘는 음의 입장이므로 모든 것을 배후에서 돕는 입장이다. ‘치마(裳)’의 역할은 위가 아닌 아래에서이다. 그러면서도 가운데 있으니 ‘황(黃)’이다. 누런 색은 가운데 자리를 상징한다.”(『국제신문』, 2007. 2. 21일자 19면 기사)라고 한 바 있다.

물론 『역(易)』 「계사(繫辭)」에는 양존음비(陽尊陰卑)로 오해될 만한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라는 구절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자연현상에서 하늘이 높고 땅이 낮다는 가치중립적 묘사를 그대로 인간세계에 가져와 귀천의 지위의 근거고 삼아버린 음양 차별의 대표적 묘사”³³⁾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정이는 屯卦 六二爻를 해석할 때 ‘음이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선천적인 차별에 의거해서 음양의 질서가 고정된다.’고 했다. 원문은 ‘여자가 선택의 기로에서 중정한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잘해야 하며, 선택을 잘못하면 십년 만에 뗏뗏함을 회복한다.’고 하였다.”³⁴⁾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의 이면에는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계를 서구의 이항대립의 관계로 오인한 데서 비롯된 선입견이 깔려 있다. 사실 『역(易)』이 음양 관념에서 출발한 것인지도 불명확할 뿐더러³⁵⁾, 본래 음양(陰陽)이란 구름이 해를 가린 형상인 ‘隩’과 해가 빛나는 형상인 ‘易’에서 나온 만큼 경험에서부터 출발하여 추상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역(易)에 들어와서는 ‘고정적인 것이 아닌 유동적인 것’으로 여겨졌다. 더구나 음(陰)과 양(陽) 어느 하나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세계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히 『역(易)』의 첫 머리인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를 여성과 남성, 양(陽)과 음(陰)의 대립적

33) 심귀득, 「주역에서 음양의 조화에 관한 연구: 음의 관점에서」, 『한국여성철학』 제4집, 한국여성철학회, 2004, 2쪽.

34) 김나연, 「페미니즘에서 본 『周易』의 再照明」, 『여성학연구』 제21권 제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1. 20쪽.

35) 구미숙은 「주역의 건곤에 관한 연구」에서 주역이 본래부터 음양관념에서 출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다(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38쪽). 그에 따르면 괘의 기본요소인 ‘--’ ‘-’ 두 부호가 후대에 陰陽으로 해석된 것이지, 본래 음양관념에서 나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음양사상은 道家 등의 다른 사상 계통에서 발전되어 「계사」, 「문언」 등의 저작시기에 주역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관계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곤괘(坤卦)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부각시키거나, 아예 건곤(乾坤)을 변화의 첫머리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들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하면서 음양의 조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기도 한다. 이런 시도는 왕부지(王夫之, 1619~1692)에 게서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음양합일실체설(陰陽合一實體說)에 의존한 기본론(氣本論)에서, “형태상으로는 양성(陽性) 혹은 음성(陰性)의 사물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대립적인 면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양 홀로 만물을 생활 수도 없고, 음 홀로 만물을 완성시킬 수도 없으며, 음양은 언제나 융합되어 일체를 이루고 있어 서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음양이기는 서로 반대하고 대립하면서도, 서로 끌어당기고 도우며, 서로 왕성하게 교합하여 화목하게 협력하면서 하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만물의 본체를 구성하면서 사물의 변화를 추동한다.”³⁶⁾라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관념을 상보성(相補性)이라는 용어로 풀어 내기도 한다.³⁷⁾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음(陰)과 양(陽)이 서로 짝이 되는 관계(配偶)를 일음일양(一陰一陽)하는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계라고 해왔다. 사실 음(陰)과 양(陽)이라고 하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역(易)』에서 말하는 음양(陰陽)은 변화의 국면에서 일음일양(一陰一陽)하고 일동일정(一動一靜)하며 일개일합(一開一闔)하는 과정에서 파악되어야 한다.³⁸⁾ 따라서 음(陰)과 양

36) 朱伯崑,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예문서원, 1999, 159쪽.

37) 金京一은 『『易經』의 乾坤의 世界의 構造』에서, 상보성을 “차이를 통한 화합” 혹은 ‘통일 속의 차이’인 것이다. 화합을 이룬 차이만이 진정하게 상대하는 개별들이며 이러한 차이들이 진정한 대대의 관계를 가질 때 통일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대하면서 협력한다는 것을 相補性 또는 兩互性 이라 한다.”(앞의 논문, 272쪽)라고 말한 바 있다.

38) 相補性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이 점을 설명하기는 했지만, 金京一도 이 점에 동의하였으므로 “易道 음양관의 기본적 입장에는 음 속에 양이

(陽) 개념이 건괘(乾卦)와 곤괘(坤卦)로 승화되었다거나, 곤이 음(陰)의 관점에서 『역(易)』의 의미를 재구성하거나, 음양의 조화 내지는 상보성(相補性)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음양대대적(陰陽對待的) 관념을 풀이할 필요는 없다.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다는 전체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一陰一陽’은 태극이 한 번은 음으로, 한 번은 양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 것이다.”(위의 논문, 276쪽)라고 말한 바 있다.

■ 참고문헌

『周易』

- 고형 외 2명, 김상섭 편역, 『주역점의 이해』, 지호, 2009.
- 구미숙, 「주역의 건곤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金京一, 「『易經』의 乾坤의 世界的 構造」, 『東洋哲學研究』 제40집, 동양철학연구회, 2004.
- 김나연, 「페미니즘에서 본 『周易』의 再照明」, 『여성학연구』 제21권 제1호,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1.
- 김석진, 『대산주역강의』 1,2,3, 한길사, 1999.
- 김진희, 『주역의 근원적 이해 : 천문역법을 중심으로』, 보고서, 2010.
- 김치완, 『개정판 실용易사상』,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치완, 「天·上帝論과 理氣論을 중심으로 본 茶山 인간관의 기초」, 『대동철학』 제34집, 대동철학회, 2006
- 노사광, 정인재 역, 『中國哲學史(漢唐篇)』, 探求堂, 1988.
- 廖名春외 2명 지음, 심경호 옮김,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1994.
- 樓宇烈, 『王弼集校釋』, 華正書局, 臺北; 民國 81年.
- 송재국, 「周易 乾·坤卦의 철학적 함의」, 『인문과학논집』 제30집,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 신동준, 『주역론』, 인간사랑, 2007.
- 신영복, 『강의·나의 동양고전 독법』, 돌베개, 2004.
- 申哲淳, 「周易의 乾坤개념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심귀득, 「주역에서 음양의 조화에 관한 연구: 음의 관점에서」, 『한국여성철학』 제4집, 한국여성철학회, 2004.

- 梁黃慈潤, 「『周易』의 生命思想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王弼, 임채우 옮김, 『주역 왕필주』, 길, 2000.
- 이기동 역해,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1.
- 임명진, 「주역참동계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한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0.
- 임채우, 「陰陽관계론에서 본 여성관-男尊女卑論의 易學的 근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동양철학』 제25집, 한국동양철학회, 2007.
- 丁海王, 「『周易』 「乾卦」 卦爻辭에 대한 象數易觀點의 解釋-李道平과 丁若鏞의 관점에 특히 주목하여」, 『한국민족문화』,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정해왕, 「丁若鏞의 『周易』 「坤卦」 卦爻辭에 대한 解釋」, 『民族文化論叢』 제41집,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9.
- 朱伯崑, 김학권 옮김, 『주역산책』, 예문서원, 1999.
- 황태연, 『실증주역』, 청계, 2008.

〈ABSTRACT〉

Hexagram of Qian(乾) and Hexagram of Kun(坤)
from the Viewpoint of Yin-Yang Tui Tai(陰陽待對)
Principles

Kim, Chi-Wan / Im, Won-Cheol

'The Book of Changes(周易)' has played a key role in understanding the conventional ideas of East Asia together with 'Poems(詩)' and 'Writings(書)'. However, the concepts of yin(陰) and yang(陽) of 'the Book of Changes' reinterpre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oday seem to be based upon the premise of viewpoint of binarity of the West. Therefore, despite the approach in the same method with the traditional method of interpretation, which is the viewpoint of yin-yang Tui Tai(陰陽對待; the relation that one keep a another) principles, in many cases the rhetoric such as harmony, complementarity, review of value of yin and so on are brought into play. Hence, this study examined how the relationship of yin-yang principles is set in the languages of hexagram and lines of Hexagram of Qian and Hexagram of Kun, which are considered to represent yin and yang at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Changes'. It was found that the laws of creation of existences that become yin and then become yang the next time are systematized in a stratified way in the overall languages of hexagram and languages of lines of Hexagram of Qian and Hexagram of Kun of 'the Book of Chang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yin and yang here do not mean a specific aspect of the entire picture

of the world but are the concepts to explain the picture of the world focusing on chang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o reconstitute 'the Book of Changes' from the point of view of either yin or yang is extrinsic to its original purpose.

Key words : The Book of Changes(周易), the concepts of yin(陰) and yang(陽), Hexagram of Qian(乾) and Hexagram of Kun(坤,) viewpoint of binarity, Yin-Yang Tui Tai(陰陽對待; the relation that one keep a another) principles.